

# ‘선발타자 전원 안타’ KIA, 14-4 대승...두산 5연승 저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4회 초 무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KIA 버나디나가 홈런을 날리고 덕아웃에서 기뻐하고 있다.

팻 던, 7이닝 5탈삼진 1실점...시즌 2승째 수확  
선발타자 전원안타, 시즌 8번째이자 팀 첫 기록

KIA 타이거즈가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씩씩이 패배를 면했다. KIA는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두산 베어스의 팀 간 3차전 맞대결에서 14-4로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2연패에서 탈출한 KIA는 시즌 12승(11패)째를 거뒀다. 반면 두산은 5연승에 실패하고 시즌 6패(18승)째를 당했다. KIA 선발 팻 던은 7이닝 5피안타 2볼넷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2승째, 시즌 4번째 퀄리티스타트이기도 했다. 평균자책점도 2.90까지 떨어뜨렸다. 두산 선발투수 유희관은 3이닝 8피안타 2탈삼진 1볼넷 6실점으로 시즌 2패(1승)째를 떠안았다. 앞선 1,2차전을 모두 두산이 잡은 가운데 KIA는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반격에 나섰다. 1회초 선두타자 김선빈의 2루타

뒤 버나디나의 적시타가 나왔고 곧바로 김주찬의 홈런으로 3-0으로 점수를 벌렸다. 초반 분위기를 끌고온 KIA는 3회부터 5회까지 화력을 집중시켰다. 3회초 선두타자 최형우의 안타 뒤 나지완과 정성훈의 연속 2루타가 이어졌다. 이어 김민식의 적시타로 6-0으로 점수를 벌렸다. 4회초 버나디나의 홈런으로 이닝을 시작한 KIA는 나지완과 정성훈의 2루타, 최원준의 안타로 3점을 보냈다. 점수는 9-0. 5회초 1사 후 김선빈의 안타, 버나디나의 2루타로 2.3루 찬스를 만든 KIA는 김주찬의 2타점 적시타 뒤 나지완의 투런 홈런으로 13-0까지 달아났다. 침묵한 두산의 타선은 5회말 간신히 한 점을 뽑아냈다. 김민혁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박세혁과 백민기의 진루타가 이어졌다. 이어 최주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한 점을 만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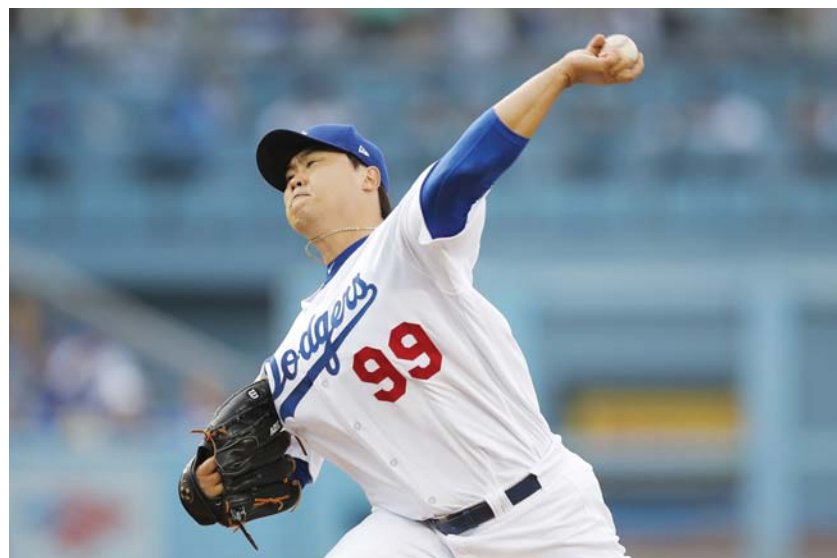
7회초 KIA는 선두타자 버나디나의 볼넷 뒤 서동욱의 2루타, 이명기의 볼넷으로 무사 만루 찬스를 잡았다. 이어 나지완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달아내면서 14점 쉐를 올렸다. 8회말 두산은 다시 한 번 힘을 냈다. 1사 허경민 타석에서 3루수의 실책이 나왔고, 곧바로 조수행이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쳐 한 점을 만회했다. 이어 정진호의 중전 안타로 3-14로 따라갔다. 9회말 두산은 박세혁의 2루타와 포일, 백민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했다. 그러나 두자릿수로 벌어진 점수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후 후속타가 나오지 않았고 이날 경기는 KIA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KIA는 6회 홍재호의 안타로 선발 타자 전원 안타 기록을 작성했다. 올 시즌 8번째이자 KIA의 시즌 첫 번째다.

## 3경기 연속 '삼진쇼' 류현진, 칼날 제구+팔색조 투구 빛났다

워싱턴전 선발등판 7이닝 2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가 제대로 탄력 받았다. 다양한 구종을 원하는 곳에 쏘으며 3경기 연속 삼진쇼를 펼쳤다. 류현진은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2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했다. 오클랜드전 6이닝 8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따냈던 류현진은 17일 샌디에이고전 6이닝 9탈삼진 2실점에 이어 3경기 연속 호투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1점대(1.99)까지 떨어졌다. 특히 데뷔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8탈삼진 이상을 기록하며 삼진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데뷔 2년차인 2014년 3경기 연속 7탈삼진 이상을 기록했었다. 3경기 19이닝 동안 무려 삼진 25개를 잡았다.

두 차례 수술과 재활을 거치며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2마일 정도 떨어졌다. 류현진의 패스트볼 구속은 메이저리그 평균에도 못미치는 140km 중후반에 머문다. 그럼에도 올 시즌 한 동안 잠자던 삼진본능을 다시 깨웠다. 지난해 새롭게 연마한 컷패스트볼(컷터)을 안정적으로 장착하며 어느 한 구종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질로 상대 타자를 요리했다. 지난 오클랜드전에서 재미를 봤던 컷터를 패스트볼(25개)보다 많은 26개나 던졌다. 더욱 날카로워진 커브와 체인지업도 결정적인 순간 승부수로 꺼내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8개 삼진은 체인지업 3개, 패스트볼 2개, 커브 2개, 컷터 1개 등이 결정구가 됐다. 어느 한 구종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최적의 공을 던졌다. 3회까지 한 타자를 상대로 같은



류현진(31·LA 다저스)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힘차게 공을 뿌리고 있다.

구종을 연속해서 던지지 않을 정도로 불배합에 신경썼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상대 타자와 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유리하게 승부를 이끌었다.

시즌 첫 등판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투구로 우려를 샀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들쭉날쭉한 등판 일정에도 놀라운 피칭으로 에이스 못지 않은 5선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최초 개최 영암군, 종합우승까지 거머쥘다

영암군에서 열린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감동·화합 체전, 문화·관광 체전, 소득·경제 체전, ‘성공·참여 체전’ 목표를 달성하며 22일 폐회했다. 이번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전남체전)는 ‘솟아라! 전남의 힘, 펼쳐라! 영암의 꿈’이라는 주제로 최초로 영암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을 영암군이 차지하면서 영암군은 군 역사상 최초 개최와 함께 최초 종합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새 역사를 썼다. 이어서 종합순위 2위는 광양시, 3위는 순천시, 4위는 여수시, 영광군, 나주시, 해남군이 그 뒤를 이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는 수영에서 3관왕을 차지한 영암군 전혁(19·남) 선수에게 돌아갔다. 제57회 전남체전은 지난 19일부터 4일간 영암군 공설운동장 등에서 22개 종목에 역대 최대규모인 7,098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6만 명 인원과 20만 전남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지난 18일 국립공원 월출산 비우제단과 삼호읍 영산호 두 곳에서 제2회 22개 시·군 선수들의 열정만큼 활활 타오르던 성화도 대회 폐회에 따라 그 역할을 마쳤다. 黨의고장 영암군의 기운과 현대 예술이 적절히 조화된 사자공연은 이번 체전의 주제의식을 담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었던 화려한 축하공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석해 축제의 기쁨을 만끽했다. 여기에 프리

지공연과 체험관, 전시관 등이 체전 기간 동안 제공돼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6만 영암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돋보였다. 각각각종에서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가 이어졌고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눈에 띄었다. 참가 선수단으로부터 완벽한 경기운영지원과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들의 친절함에 대한 감사사가 이어졌다. 폐회식은 22일 오후 3시 영암실내체육관에서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시작됐다. 김홍식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수한 기록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 성공적인 대회였다”며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영암군 관계자와 귀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성숙한 질서인식을 보여준 영암군민 덕분에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며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장 전동령 영암군수는 “군 역사상 최초 개최의 영광과 함께 최초로 종합우승 달성까지 이루게 됐다”고 밝히며 “이런 기쁨과 감동은 하나만 6만 영암군민과 20만 전남도민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20만 전남도민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이 돼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대회 준비에 협조와 헌신해주신 군민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영암에서 쌓은 아름다운 추억과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자”고 말했다.

## “류현진, 올해 많은 이닝 소화할 것”

미국 언론, 활약에 고무적 반응

미국 언론도 류현진(31·LA 다저스)의 활약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류현진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2피안타 3볼넷 무실점 역투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선보여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올해 다저스가 거둔 9승 중 3승

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냈다. 평균자책점도 무려 1.99로 떨어내었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이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에 주목했다. 이 언론은 “올해 류현진이 8회에 도달할 것 같다. 류현진은 지난 4년간 7이닝 이상을 버티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류현진의 부상 경력을 언급한 LA타임스는 “어깨 수술을 받아 조심스럽다. 힘을 비축했지만, 그의 패스

트볼은 건강할 때보다 빠르지 않았다. 다저스는 류현진에게 더 많은 이닝을 던지게 하지 못했다.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던지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스트라스버그보다 잘 던졌다. 3회까지 2안타만 내주고 7이닝 동안 8탈삼진을 기록했다. 4회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고 13명의 타자를 범타로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 구자철 “독일과 경기 멋진 일...우선 스웨덴전 집중”

독일 분데스리가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구자철이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벌어진 독일과의 맞대결을 두고 “당연히 멋진 일”이라고 말했다. 구자철은 22일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열혈팬인 발퍼 시아노스씨와 구자

철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독일은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격돌한다. 승패와 전력을 떠나 독일에서 오래 뛰던 구자철에게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특별한 감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구자철은 독일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첫 경기인 스웨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좋은 출발을 하면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스웨덴과의 첫 번째 경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이 치른 몇 경기를 봤고, 스웨덴 선수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자철은 이어 “브라질 월드컵



에서 뛴 적이 있다. 큰 대회를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매료될 수밖에 없다”면서 “안타깝게도 2014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대회에 더 큰 의욕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임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두 번째 월드컵을 앞둔 각오를 전했다.